

#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속도 낸다

### 시, 야구장 5월 철거 완료·대체 시설 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본격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야구장 철거가 마무리되고, 대체 시설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전주시가 추진해온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총사업비 17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착수한 종합경기장부지내 야구장 철거공사가 현재 콘크리트 및 석축 구조물 등의 해체가 완료되고, 이달 중 철거부지 안전펜스 설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야구장 철거부지를 가막축제와 복송이축제, 시민장터 등 다양한 생활문화축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철거 부지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 펜스와 배수로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따른 대체 시설인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도 본격화한다.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조감도

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종합경기장 주요시설인 1층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 이달 중 건립

부지 내 기존건축물인 월드컵 보조경기장과 장동주유소에 대한 해체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오는 6월 중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5년 11월까지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국비 180억원 등 총사업비 1,421억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육상경기장은 지하 1층~지상 3층에 연면적 8079㎡, 관람석 1만82석 규모로 건립되며, 체력 단련장과 선수대기실, 스카이박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야구장은 지하 1층~지상 2층에 연면적 7066㎡, 관람석 8176석 규모로 지어지며, 실내엔 스피드 스카이박스, 편의시설 등을 갖춘 예정이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개발조성실장은 "야구장 철거를 기점으로 전주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체시설인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도 국내 대규모 스포츠 경기 유치와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어갈 수 있는 체육시설로 만들어 전주시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인문학 지식나눔 열린강좌 '호응'

### 전북대 인문대학 교수진, 재능기부 릴레이 강연 중

전주시가 전북대학교와 손잡고 전주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인문학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시와 전북대학교 인문대학(학장 신충균)은 시민들을 위한 전북대 인문대학 교수진들의 재능기부 인문학 강좌인 '인문학 지식나눔 열린강좌'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와 전북대 인문대학은 지난 2월 전주시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과 전주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소속 12개 학과의 교수진 19명이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강좌는 3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9개 시립도서관에서 각각 2회씩 릴레이로 20주 동안 무료로 이어지고 있으며, 강좌가 이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평소에는 쉽게 접할 수 없

었던 수준 높은 강연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릴레이 강연이 시작된 이후 20강의 강연을 모두 신청한 시민도 나왔다.

전북대 인문대학 교수들의 강연은 오는 7월 2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13일과 20일에는 각각 삼천도서관과 전주시립도서관에서 박용진 중어중문학과 박용진 교수의 '왕오천축국전을 읽다'와 김선태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데이터 시대, 데이터 과학자'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된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특별히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훌륭한 인문학 강연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시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팔복동 빈집, 마을상가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 전주시, 빈집 4개소 음식점·카페로 리모델링... MBC 프로젝트 '빈집살래 3 in 전주' 추진

공공배후지인 전주시 팔복동 신복마을의 빈집들이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팔복동 지역의 주거지 쇠퇴를 방지하고, 마을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22억1천만원을 들여 팔복동 내 빈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SOC공급과 기반 시설 정비, 경관 조성 등 다양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빈집 4개소(5채)를 음식점 및 카페 등 상가로 리모델링하여 동네 상권 활성화 및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전주시 홍보센터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MBC 공간제작 전문기업인 (주)글로우서울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수다가든'과 연계한 MBC 프로젝트

MBC 빈집살래 3 in 전주'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상가 4곳은 전주시 거주자와 전주시로 진입 가능한 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결정하게 된다.

MBC는 지난 4월 총 179팀의 접수를 받았으며,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 중 최종 운영자 4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면접은 오는 12일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에서 진행될 예정

/김욱기 기자

으로, 면접위원은 우범기 전주시장과 MBC 빈집살래 출연자(박나래, 신동, 김민석, 채정안), 유정수 (주)글로우서울 대표가 맡는다. 면접을 통해 선정된 운영자들은 빈집을 상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7월 중순부터 상가를 운영하며 마을 상권 회복에 앞장서게 된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팔복동의 낡은 빈집이 마을 상권 활성화를 앞당길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물론, 상가 리모델링 및 운영 과정이 프로젝트로 제작·방영되는 만큼 전주시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는 10일 완산소방서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권영준 육군 35사단 전주완주대대장, 김장수 완산소방서장 등 지역 통합방위위원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2차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 전주시청 노송광장서 중증장애인 생신품 판매행사 열려

전주지역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판매행사가 열렸다. 전라북도장애인 판매시설이 주관한 '2023년 상반기 중증장애인 생신품 판매행사'가 10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지역 중증장애인 생신시설과 전북지역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등 20여 시설에서 생산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등 중증장애인생신품이 전시·판매됐다.

이와 관련 '중증장애인생신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신품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신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의 인식제고를 통해 1.02% 구매율을 달성했으며, 지속적으로 생신품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판매행사를 수시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 마음건강 시민강좌 개최

일상생활에서 지친 전주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민강좌가 열린다.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제1회 마음건강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마음건강 시민강좌는 시민들이 스스로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짜감정,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를 주제로 열리는 강좌에는 김용태 교수(이가계 초월상담연구소 소장)가 강사

로 나서 △가짜감정을 인식함으로써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기 △감정을 제대로 활용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내 인생의 주제 찾기 △나를 깊이 이해하기 △새로운 가치관 탄생 △자신이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다 등의 내용으로 시민과 만나게 된다.

이번 시민강좌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오는 18일까지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블로그 또는 전화(063-281-8576)로 사전 신청하면 되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김욱기 기자

### 민·관·군·경·소방 힘모아 지역통합방위태세 강화

전주시는 10일 완산소방서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권영준 육군 35사단 전주완주대대장, 김장수 완산소방서장 등 지역 통합방위위원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2차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기관별 업무공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통합방위위원들은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5.12~5.20) △제2회 전주국제디자인페스티벌(5.12~6.4) △제3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5.17~5.21) 등 전주에서 개최 예정인 각종 행사 및 훈련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김철현 전주시 안전정책과장은 "행사가 많은 5월을 맞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안전 점검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중심으로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